

'92년도 전자산업 전망

— 본 회 —

1. 조사 개요

전자산업의 '92년도 경기전망 조사를 통해 내년도 경기를 예측하고 업계의 경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91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 본회의 전 회원사 8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중 설문응답업체는 340개사로 조사대상업체의 40%를 나타냈다. 조사대상업체의 비중과 부문별 비중은 아래의 표와 같다.

조사업체의 비중

구 분	조사대상	실 조사	비중(%)
업체수(개사)	850	340	40
생산액(억원)	210,356	167,230	79
수출액(백만弗)	17,215	15,400	89

주: 모든 수치는 '90년을 기준으로 함.

부문별 조사업체의 비중

구 분	생산액(90년 기준, 억원)		비중(%)
	대상업체	조사업체	
가정용기기	72,647	69,010	95
산업용기기	46,597	32,620	70
전자부품	91,111	65,600	72

2. 전자산업 수급동향 및 전망

가. 생산, 수출, 내수동향 및 전망

(단위: 생산, 시판—억원, 수출, 로칼—백만弗)

구 분		'90	'91	'92	증감률(%)	
		(실적)	(추정)	(전망)	'91/'90	'92/'91
전자공업	생산	210,356	241,559	266,440	14.8	10.3
	수출	17,215	19,200	20,510	11.5	6.8
	로칼	3,121	3,338	3,530	7.0	5.8
	시판	60,098	64,274	69,900	6.9	8.8
가정용기기	생산	72,647	78,203	83,520	7.6	6.8
	수출	5,529	5,732	5,850	3.7	2.1
	로칼	-	-	-	-	-
	시판	29,963	34,460	37,630	15.0	9.2
산업용기기	생산	46,597	52,121	56,810	11.9	9.0
	수출	3,481	3,810	4,040	9.5	6.0
	로칼	35	-	-	-	-
	시판	20,010	18,344	20,100	-8.3	9.6
전자부품	생산	91,111	111,235	126,110	22.1	13.4
	수출	8,204	9,658	10,620	17.7	10.0
	로칼	3,085	3,338	3,530	8.2	5.8
	시판	10,126	11,470	12,170	13.3	6.1

(1) '91년 동향

'91년 우리 전자산업은 상반기까지는 소련 및 동구권시장의 특需에 의한 호조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내수 및 동구권시장의 수요부진 등으로 가정용부문 수출이 부진하고 특히 산업용 부문에서는 컴퓨터가 급격한 경쟁력 약화를 보이고 있다.

생산은 14.8% 증가한 24조원으로 추정되고 수출은 당초 전망보다는 다소 증가한 192억弗로 11.5% 성장이 예측되며 내수는 컴퓨터 부문

의 부진 등에 의해 기대보다 저조한 6.9% 신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가정용기기는 동구권시장의 特需조기소진 등 수요계약과 주종제품의 경쟁력 약화 등에 기인하여 생산은 7.6%, 수출은 3.7%의 성장에 머무나 시판은 대형 가전품의 수요증가 등으로 15.0%의 성장이 전망된다.

산업용기기는 무선통신기 등 통신부문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부문의 침체로 생산은 11.9%, 수출은 9.5% 성장에 그치고 시판은 컴퓨터 등의 대량수요 부진에 의해 -8.3% 성장이 예측된다.

전자부품은 DRA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및 CPT 등의 수요 호조에 힘입어 생산 22.1%, 수출은 17.7%의 높은 성장이 시현될 전망이다.

(2) '92년 전망

'92년도 전자산업 생산은 10.3%, 수출은 6.8%, 시판은 8.8%로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

내년도의 경기를 부진하게 보는 지배적인 요인은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는 '91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나 우리 전자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입규제, 통상마찰 증가 등이 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바로셀로나 올림픽 개최, 국내의 주요선거 등 特需 및 중남미 신시장 수요의 증가 등의 어느 정도 호전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년과 비교한 업계의 전자산업 경기전망은 10%~15%의 다소 호조를 예상하는 업체가 43%, 금년보다 부진하거나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57%에 달해 전반적으로 10% 수준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나. 주요 품목별 동향 및 전망

(1) 가정용기기

(가) C-TV : 올림픽, 국내외 주요선거 등의 特需 및 중남미 시장의 신규수요에 힘입어 생산, 수출, 시판은 각각 14.1%, 7.6%, 11.4%의 성장이 전망된다.

(나) VTR : 관련기기인 C-TV의 성장에 따라 생산은 11.9%, 수출은 6.4%, 시판은 15.1%로 전망된다.

(다) 음향기기 : 국내적으로는 4대선거 및 AV화 진전 등에 의해 생산은 9.6%, 시판은 7.4%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수출은 EC 등의 부진 등으로 -4.2%의 성장이 예상된다.

(라) MWO : 주 수출시장인 EC의 재고물량 소진 및 기존제품의 신규 대체수요 등에 의해 가정용기기 중 가장 견실한 성장을 기대, 생산 26.3%, 수출 7.7%, 시판 1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경기전망	호 조 (10~15%)	부 진		계
		현상유지 (10%미만)	악 화 (마이너스성장)	
업체 수	146	105	89	340
구성비 (%)	43	31	26	100

(2) 산업용기기

(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 '91년도의 침체로부터 획기적인 반전 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첨단형 고급품인 Notebook PC, LBP, 고해상도 칼라모니터 등을 중심으로 성장이 전망되며, 생산, 시판은 수출 및 국내시장의 부진으로 각각 4.8%, 6.5%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수출도 경쟁력 약화 지속으로 2.3%의 낮은 증가가 전망된다.

(나) 통신기기 : 유선통신기는 일반전화기 등의 수요한계 및 수출채산성의 악화 등으로 성장의 부진이 예상되나 무선통신기는 코드리스 폰 등 일반전화기의 대체수요 등 수요의 증가가 통신기기의 성장부진을 다소 상쇄할 것이다. 수출은 동남아산 제품의 저가공세, 모토로라 등의 특허클레임 제기 등의 견제요인에 의해 마이너스 11.8% 역 성장이 전망되나 생산 및 시판은 국내 선거의 수요창출 기대로 각각 10.3%와 28.0%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3) 전자부품

(가) 반도체 : '91년도에도 호조를 보인 반도체 부문은 일본의 주종제품 변경(IM DRAM→4

M DRAM)에 따른 추가 안정수요 확보와 함께 실리콘 싸이클 상승국면에 따라 생산은 27.6%, 수출은 16.4%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시판은 전자기기의 소형화 추세 및 고부가가치화에 따른 수요 증대가 기대되어 45.7%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나) CPT : 화질의 선명도가 높은 대형TV 생산증가 등에 따른 수요의 호조 및 소형CPT 수출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은 14.5%, 수출은 11.7%, 시판은 15.8%가 전망된다.

(다) 자기테이프 : 동남아 지역의 VTR 수출확대 등에 따른 일부 수요증가 요인 등이 예상되나 EC지역의 수요저조에 따라 생산은 8.0%, 수출은 2.7%, 시판은 4.9%가 전망된다.

3. 투자동향 및 전망

가. 연구개발 투자

(1) 동향 및 전망

'91년도 전자업계의 연구개발 투자는 1조 2,850억원으로 매출액대비 약 5.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생산(억원)				수출(백만불)				시판(억원)			
	'91	'92	증감률 (%)		'91	'92	증감률 (%)		'91	'92	증감률 (%)	
			'91	'92			'91	'92			'91	'92
C - T V	16,950	19,340	18.1	14.1	1,531	1,648	13.6	7.6	5,260	5,860	14.1	11.4
V T R	12,690	14,200	14.4	11.9	1,222	1,300	7.2	6.4	3,170	3,650	17.3	15.1
음 향 기 기	20,280	22,220	11.5	9.6	1,605	1,538	-7.6	-4.2	6,460	6,940	9.7	7.4
M W O	5,860	7,400	20.5	26.3	571	615	6.9	7.7	1,130	1,300	12.1	15.0
컴퓨터및주변기기	23,080	24,180	1.9	4.8	2,004	2,051	1.0	2.3	8,680	9,240	3.1	6.5
전화기(유·무선)	4,476	4,930	10.5	10.3	287	253	-13.3	-11.8	2,210	2,830	30.5	28.0
F A X	2,200	2,760	30.5	25.4	96	130	60.1	35.0	875	920	-14.0	5.0
계 측 기	634	666	-2.5	5.0	79	81	-3.0	2.0	150	155	-8.0	3.0
반 도 체	45,700	58,320	26.5	27.6	5,673	6,605	25.0	16.4	2,100	3,060	30.1	45.7
C P T	12,770	14,620	25.0	14.5	957	1,069	22.5	11.7	760	880	16.2	15.8
자 기 헤 드	4,500	4,600	-5.0	2.2	570	577	-6.6	1.2	14	16	7.7	14.3
자 기 테 이 프	8,770	9,470	11.0	8.0	937	962	7.6	2.7	1,230	1,290	9.1	4.9
P C B	2,550	2,790	-7.5	9.4	104	110	32.0	4.8	410	460	-23.0	12.1
스 피 커	1,940	2,105	16.0	8.5	215	220	10.0	2.5	360	416	24.1	15.5

연구개발투자 동향 및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90	'91	'92
연구개발투자	10,230	12,850 (25.6)	15,430 (20.1)
자체개발투자	8,180	10,370 (26.8)	12,670 (22.2)
기술도입대가	2,050	2,480 (21.0)	2,760 (11.3)

주: '91, '92년도 각 수치밑의 ()내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율임.

부문별로는 자체연구개발 투자에 1조 370억원, 기술도입대가 지분이 2,480억원으로 나타났다.

'92년도의 투자는 전년도 증가율보다 다소 낮은 20.1% 수준에 이르러 1조 5,430억원이 될 것이며 자체개발 투자는 1조 2,670억원으로 22.2%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이는 경기전망이 예년 수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키 위한 업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 연구개발 투자 애로요인

전자업계의 연구개발 투자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투자자금의 부족(38%)을 꼽고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곤란을 호소한 업체도 29%에 이르고 있어 정부의 자금지원과 연구개발 방향제시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 & D투자 애로요인

순위	애 로 요 인	구성비(%)
1	투자재원의 부족	38
2	시장의 불확실로 인한 기술개발 목표의 설정곤란	29
3	연구시설·기자재의 부족	10
4	기술정보 입수 곤란	9
5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부족	8
6	기 타	6

나. 시설투자

(1) 동향 및 전망

시설투자 동향 및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90	'91	'92
전 자 산 업	22,246	24,940 (12.1)	27,610 (10.7)
가정용기기	4,950	4,900 (-1.0)	4,990 (1.8)
산업용기기	4,343	5,330 (22.7)	4,530 (15.0)
전 자 부 품	12,953	14,710 (13.6)	18,090 (23.0)

주: '91, '92년도 각 수치밑의 ()내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율임.

'91년 전자산업의 시설투자는 가정용부문의 신규 주종품에 대한 설비투자과 산업용부문의 통신기기, 전자부품의 반도체, CPT 등 설비투자에 힘입어 전년대비 12.1%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시설투자 애로요인

순위	애 로 요 인	구성비(%)
1	자금조달의 곤란	34
2	경기전망 불투명	33
3	기능 및 기술인력 확보 곤란	11
4	수요부진	7
5	수익성 저하	6
6	각종 인허가 절차의 복잡	3
7	공장입지 확보 곤란	2
8	기타(원자재 조달 곤란 등)	4

'92년도는 반도체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전자부품의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보이나 컴퓨터부문의 침체가 지속될 전망으로 산업용의 투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10.7%의 투자증대가 전망된다.

(2) 시설투자 애로요인

전자업계의 시설투자 애로요인으로는 자금조달 곤란이 34%, 경기전망 불투명이 33%로 우선적인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다. 자금조달 및 정책자금 소요

(1) 자금조달 여건

(단위 : %)

구 분	한 국	대 만	일 본
금 리 수 준	19.5	8.76	7.59
매출액 금융비용	6.0	1.7	1.7

주 : 1. 한국은 전자산업
2. 매출액 금융비용 중 대만과 일본은 '89년 기준, 나머지는 '91년 상반기 기준임.

우리 전자산업의 경우 '91년 상반기까지 금리 및 금융비용 등 자금조달 여건은 경쟁국과 비교할 때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금조달 방법

순위	에 로 요 인	구성비
1	사채 등 직접금융시장	35%
2	일반은행 등 간접금융시장	32%
3	정부지원 자금	16%
4	사내유보 등 내부자금	9%
5	단자·보험 등 제2금융권	5%
6	기 타	3%

전자업계의 자금조달은 주로 외부조달(사채시장 35%, 일반은행 32%)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내유보 등 내부 자금조달은 9%에 불과한 실정으로 업계의 효과적 투자수행을 위해서 시중 통화유통 구조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 자금조달 애로요인

순위	에 로 요 인	구성비
1	기술개발 관련 정책금융 규모의 부족	45%
2	정책자금 이용절차의 복잡	24%
3	자체 재무구조의 취약	18%
4	금융기관의 이해부족	9%
5	기 타	4%

전자업계는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에도 큰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는 시중유통 통화량의 부족에 근본 문제가 있지만 그밖의 애로요인은 정책자금의 태부족(45%), 정책자금 이용절차의 복잡(24%) 등 정책자금에 대한 애로가 69%

에 달해 무엇보다 시급히 정책자금에 대한 확대와 이용절차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4) 정책자금지원의 소요

자 금 명	소 요 액(억원)		
	개발자금	운전자금	계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	508	185	693
특정 연구개발 사업자금	323	209	532
공업발전 기금	665	305	970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금	263	238	501
산업은행	3,179	544	3,723
계	4,938	1,481	6,419

전자업계의 정책지원자금 소요는 총 6,419억원으로 조사되고 있어 '91년도의 정부개발자금 지원계획인 1,738억원의 약 4배에 이르고 있어 업계의 소요에 비해 정책금융의 절대액이 부족한 실정이다.

4. 경영여건 및 전망

가. 고용동향 및 전망

구 분	1991			1992 (계획)	증감율 (%)
	계획(A)	실적(B)	A/B		
총 신규고용(명)	54,300	48,100	88.6	49,900	3.7
연구개발직	8,400	7,160	85.2	8,360	16.8
생산근로직	32,800	29,300	89.3	30,600	4.4
기 타 직	13,100	11,640	88.9	10,940	-6.0

주 : 조사업체 실시치

'91년의 고용은 당초 계획보다 11.4% 미달한 고용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부문별로 보면 연구개발직은 당초계획의 85.2% 고용에 머물러 생산근로직의 89.3%보다 저조해 여전히 기술인력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10.7%의 고용부족을 보여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2년의 신규고용은 경기전망 불투명 등에 의해 3.7%의 증가가 전망되며 부문별로는 경쟁력강화와 관련하여 기술개발 노력의 반영으로 16.

8%의 고용수요가 전망되며, 생산직 인력은 4.4% 증가에 반해 기타직의 고용은 6.0% 감소가 전망된다.

(1)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연구개발 기술인력 확보방안으로 업계는 전문화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88%)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위	인력수급 방안	구성비
1	연구개발 기술인력의 질적수준 향상	57%
2	기술분야별 전문교육기관의 신설	31%
3	기술개발 인력의 양적확대	10%
4	기타(사업내 기술대학 확충 등)	2%

생산직 인력확보 방안으로는 신규양성 강화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최근의 구인난 속의 구직난을 반증하고 있으며 특히 병역특례 인원확대 요구도 17%나 되어 최근 시행되는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반면 해외인력의 수입을 원하고 있는 비중은 6% 이하로 낮은 편임을 보여주고 있다.

순위	인력 확보 방안	구성비
1	신규양성 강화(공고 및 공동 직업 훈련기관 확충 등)	29%
2	자동화를 통한 대응	27%
3	주부인력 등 유휴인력의 활용	21%
4	병역특례 인원 확대	17%
5	기타(해외인력 수입허용 등)	6%

나. 임금동향 및 전망

(1) 임금동향 및 전망

구 분	'90	'91(추정)	'92(전망)
총 인 건 비	17.2	15.1	10.2
인 건 비	17.3	15.3	9.8
후생복지비	15.2	13.2	10.9

'88년을 기점으로 20%를 상회할 정도로 급상승했던 인건비 상승률은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경쟁국인 일본(3.4%, '90년),

대만(10.6%, '90년)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1년도 전자업계의 인건비는 15.3%, 후생복지비는 13.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92년 임금상승은 노사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10.2%로 전망되고 있으나 최근의 인플레이 압박 요인 등에 의해 다소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임금상승에의 대응실태

최근의 지속적 고임금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느끼는 업체는 10%에 불과하고, 최근의 임금상승을 기업경영에 대한 압박으로 느끼는 업체는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인상의 경영에의 영향정도

순위	영 향 도	구성비
1	다소 부담이 된다.	57%
2	크게 부담이 된다.	33%
3	견딜 수 있다.	10%

임금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업계의 대부분(93%)이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신제품개발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임금상승분을 수출가격에 거의 전가하지 못하고 적자수출을 감수해야 하는 실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인상에 대한 대응방안

순위	대 응 방 안	구성비
1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흡수	71%
2	제품의 고급화 및 신제품 개발	22%
3	인원 및 기구 축소 등	4%
4	수출가격에 전가	3%

업계의 부담가능한 적정 임금인상률 수준은 업계의 84%가 한자리수 인상을, 그중에서도 15%는 5%미만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적정 임금상승 수준

순위	임금수준	구성비
1	5%~10% 미만	69%
2	5%미만	15%
3	10%~15%미만	12%
4	기타	4%

다. 기타 경영여건 전망

(1) 시장여건 전망

세계 전자시장 수요전망

시장수요	구성비
호조 (10%~15% 미만)	10%
다소호조 (5%~10% 미만)	47%
부진 (5% 미만)	39%
기타	4%

내년도의 세계시장 수요를 호조(10% 이상), 다소 호조(5% 이상)로 업계의 57%가 보고 있어 해외시장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지역별 수요변화 요인

호전요인	호전품목	지역	부진품목	부진요인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상승	가전제품	미주	컴퓨터등	PC산업 침체
올림픽수요고급화	오디오 가전제품	E C	가전제품	통상마찰, 수요부진 후발개도국 저가공세
		일본	전품목	시장지출제약
신제품수요확대	산업용기기	동남아		
정치·경제 안정	가전제품	중남미 동구권	가전 산업용	시장수요정체

(2) 수출채산성 확보가능 품목별 환율수준

환율수준	주요 품목
751~760원	PCB, 수정진동자, 오실로스코프, 트랜스, 리모콘, 웨이트코아, 마그네틱헤드, 콘덴서, 다이오드, 비디오폰
761~770원	저항기, A/TAPE, 스위치, 튜너, 브라운관용 별브, 콘넥터, 무선전화기, 차량도난 방지기, 인턴폰, 위성방송 수신기
771~780원	LED, 스피커, 카안테나, 동박적층판, MWO, C-TV, CDP, 뮤직센터, 계측기, 자동응답기
781~800원	SMPS, 캡스톤 모터, 전자총, 릴레이, 컴퓨터 주기판, Solenoid, 복사기, 전광판, 키폰,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소형C-TV, VTR